

지난해 초 인간의 최대 수명을 두고 거액의 돈을 걸고 내기를 벌인 적이 있었다. 미국 일리노이대 공공보건대의 스투어트 올산스키 교수는 130세를, 아이다대의 스티븐 오스태드 교수는 150세를 주장했는데, 이들이 2150년 1월 1일 150살 먹은 사람이 나타날지 확인하는 것으로 내기한 것. 두 사람은 우선 150달러를 신탁예금하고 매년 상속인들이 약간씩 보태 2150년에 5억 달러를 만들기로 했다. 상금은 승리자의 상속인에게 돌아간다.

주문형 출판의 미래가 내기의 주제

이처럼 앞날의 일을 두고 내기를 거는 일(Betting on the Future)이 미국에서는 드물지 않다. 지난 달 중순 미국의 정보통신 및 인터넷 관련 웹진 <와이어드>(www.wired.com)는 교통, 인공지능, 천문학, 소프트웨어, 스포츠 등 다양한 분야의 미래를 두고 내기를 거는 특집을 마련했다. 5천 달러가 걸린 소프트웨어 분야는, 2012년까지 러시아가 소프트웨어 개발 분야에서 가장 앞선 나라로 《월스트리트 저널》과 《뉴욕타임즈》에 언급될 것인지 여부가 주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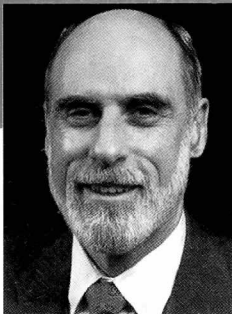
출판의 미래가 빠질 수 없다. 2010년까지 전 세계 도서 매출액의 절반 이상이 주문형 출판(POD)을 통해 제작, 판매될 것인지 여부가 주제다. 1천 달러가 걸린 이 내기에 참여한 사람은 랜덤하우스 편집장을 지낸 미국 출판계의 산 증인 제이슨 애플스타인과, 정보통신 커뮤니케이션 업체인 월드컴의 부회장인 빈트 G. 서프. 이들 가운데 애플스타인은 '그렇다'는 쪽에, 서프는 '그렇지 않다'는 쪽에 걸었다. 이들이 건 돈은 이긴 사람이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 지정한 비영리 기관, 단체에 모두 기부하도록 돼 있다. 애플스타인은 뉴욕 공공 도서관을, 서프는 인터넷 협회(www.isoc.org)를 지정했다.

애플스타인은 출판 산업의 미래를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이 전망한다. 웹에 기반을 둔 서점이 전 세계적으로 공방이나 동네 어귀 등 다양한 곳에 들어서게 될 것이며, 그런 서점은 우리가 오늘날 버스 정류장 같은 곳에서 흔히 보는 소규모 간이 상점이나 은행 무인 점포 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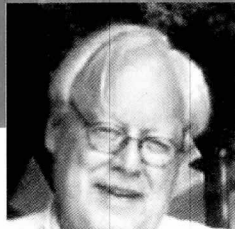
웹 기반 출판산업이 미래출판 주도할 것

출판의 미래에 대해 내기 벌이는 미국 출판인들

표정훈 | 출판칼럼니스트



주문형 출판의 미래를 주제로 내기를 건 빈트 G. 서프(왼쪽)과 제이슨 애플스타인.



은 형태가 될 것이다. 구매자가 책을 선택하면 온라인에서 내려 받은 파일이 제책 설비를 거치면서 즉석에서 책으로 만들어지는 것이다.

웹 기반 출판시대 곧 열릴 것이라 전망해

이에 비해 서프는 전자책이 출판 산업을 근본적으로 바꿔 놓을 것이라고 전망한다. 온라인으로 내려 받아 PC 스크린에서 보는 데 익숙해진 독자들은 더 이상 종이를 낭비하려 들지 않으리라는 것. 두 사람의 주장을 좀더 자세히 들여보자. 먼저 서프의 주장이다.

“종이못치를 들고 다니는 일이 불필요하게 될 것이다. 물론 전통적인 종이책이 배터리 충전이 필요 없다는 장점이 있지만, 전자 매체 수단으로 읽는 일이 일상화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물론 종이책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고화질의 디스플레이를 갖춘, 휴대하기 좀더 편리한 기기들이 나올 것이고,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기술의 발전도 이뤄질 것이다. 책, 음악, 영화 등을 좀더 손쉽게 즐길 수 있는 기기 말이다. 나는 2010년이 되면 판매되는 도서의 절반 이상이 전자 매체를 통해 그 내용을 내려 받아 구입하는 방식이 되리라 생각한다.”

다음으로 애플스타인의 주장이다.
“나는 주문형 출판이야말로 출판 산업의 미래 그 자체라고 확신한다. 주문형 출판 관련

기술의 발전은 웹에 기반을 두고 즉석에서 책을 제작하는 기기의 대당 가격을 10만 달러

수준으로까지 낮춰놓게 될 것이다. 종이책의 미래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도 있지만, 텍스트가 음향 및 영상과 결합되는 것을 달가워할 독자는 많지 않을 것이다. 오랜 습관이라는 것은 빨리 바뀌지 않는 법이다. 모를지기 시장에 접근할 때는 시장의 현실을 있는 그대로 봐야 한다. 시장은 이래야 한다든가 하는 식의 당위적 접근법도, 언젠가는 이렇게 될 것이라든가 하는 식의 막연한 접근법도 유망하지 못하다.”

이 내기에서 흥미로운 점은, 온라인과 웹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형태의 출판 산업이 미래 출판을 주도하게 되리라는 전망에서 두 사람이 사실상 의견을 같이한다는 것이다. 다만 애플스타인이 종이책의 주문형 출판에 기대를 건다면 서프는 전자책에 기대를 건다는 점이 다르다. 애플스타인은 《북 비즈니스》(최일성, 미래사)에서 이미 주문형 출판의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전망한 바 있다.

뉴욕 공공 도서관과 인터넷 협회 가운데 어느 쪽이 2천 달러를 차지하게 될 것인지는 당연히 때가 돼야 알 수 있을 것이다. 이번 내기는 출판 관련 신기술의 발전 추이와 속도 및 그 파급 효과를 주의 깊게 관해 봐야 할 필요성을 새삼 상기시켜준다. ■